



신년사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회원님들의 가정에서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화살보다 빠른 것이 세월이라더니 회장 소임을 맡은 지 벌써 4년, 물러갈 시간이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우회는 지난해에 창립 25주년을 보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회원들의 사진을 넣은 2016년판 회원수첩을 만들어 '송년의 밤' 행사 때 전해주었고, 'MBC에 묻어둔 이야기'라는 제목의 단행본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MBC 55년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기록으로 남겨야 할 '우리시대 이야기'들이 실릴 것입니다. 이 단행본은 2월 '회원정기총회'때 전달하겠습니다. 회원들은 6~70년대 어려웠던 시절을 반추하고, 현장의 후배들은 어려웠던 시대를 선배들이 어떻게 극복하고 헤쳐 나갔는지를 간접 경험하고 배울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숙원이었던 사우회 사무실을 42평으로 확장하고,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장기념 송년모임도 가

졌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우회의 발전을 바라는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진정한 MBC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우회는 사무실 확장에 따라 '캘리그래피' 동호회 회원을 모집하는 등, 회원들이 넓어진 사무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16년은 재주가 많고 영리하고 예지의 본능이 강한 '붉은 원숭이' 해입니다. 회원님들도 재주와 명석함으로 소망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예지의 본능으로 대박 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는 행복이며, 긍정적 사고와 배려가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긍정과 배려가 가슴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합시다.

저 개인적으로도 '물러나는 자리가 향기로우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MBC 사우회 회원 여러분, 새로운 4반세기를 시작하는 2016년, 모두의 지혜를 모아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문화방송 사우회장 김수량



신년사



다사다난했던 2015년 을 미년이 저물고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우회 선배님들의 가정에서 만복이 깃들기를 MBC 임직원을 대표해서 축원합니다.

MBC를 향한 사우회 선배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에 힘입어 올 한 해도 좋은 결실을 이뤄 나갈 것을 임직원들과 함께 다짐합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켜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어진 여건에도 불구하고 여의도에서의 구태와 악습은 모두 떨쳐냈고 선배님들이 이뤄놓으신 좋은 전통은 계승하여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저희 임직원들이 합심해 고품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최고의 시청률을 달성했으며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등 해외로 콘텐츠 완제품과 포맷 수출도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연초에 적자가 우려되었던 경영성과는 흑자기조로 전환되었고 이후 양호

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러한 성과는 지난 50년간 사우회 선배님들의 헌신과 노고로 일궈 놓으신 회사의 위상이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임직원들은 선배님들의 애정과 따름 언제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상암 신사옥 1층 현관에 걸려있는 "飲水思源 掘井之人"의 마음으로, 저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글로벌 시대에서 선두주자로 우뚝 서기 위해 모든 열정을 바치고자 합니다. 선배님들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들에게 힘이 됩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작년 말, 사우회 사무실 공간이 확장되어 선배님들이 좀 더 쾌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하시니 마치 오래된 숙제를 해결한 듯 저희도 기쁩니다. 더 많은 선배님들이 나오셔서 즐겁고 보람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시면서 언제나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기원합니다.

(주)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 안광한



확~ 넓어진 사우회 사무실로 놀러 오세요!

한류의 중심 MBC, 체험의 중심 MBC

채널경쟁력, 채널 선호도, 연간시청률 1위



올 정기총회 2월 26일 (금) 11:00 세종문화회관

2016년 회원정기총회가 2월 26일 (금) 오전 11:00에 세종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사우회 제6대 회장을 비롯한 새 임원을 선출합니다. 임기를 끝내고 물러나는 김수량 회장 등 현 임원진에게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새롭게 사우회를 이끌고 갈 차기 임원진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결산을 승인하고 새해 예산을 확정하는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세종문화회관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전화 02-399-1114,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세종문화회관역) 8번출구)

차기 회장에 이연현(편제) 회원 추대

1월11일(월) 사우회 사무실에서 열린 2016년도 제1차 이사회는 회장단과 이사-감사 등 모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우회 제6대 회장에 이연현(편제) 회원을 추대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사우회 정관 제11조 (임원의 선출)는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어 정기총회의 결정이 남아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부문별 부회장과 이사 등 새로운 임원진의 윤곽도 드러났는데 이들도 회원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확~넓어진 사무실로 놀러 오세요!

사우회는 12월, MBC의 지원을 받아 사무실 두 곳을 더 임대해 공사를 끝내고 사우회 사무실로 편입시켰다. 이로써 사우회 사무실은 24평에서 42평으로 확장됐다. 김수량 회장은 취임 초부터 'MBC 중흥의 역사가 깃든 중요한 건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MBC측과 사무실 확장에 관해 계속 협의해왔다. 사무실 확장과 함께 도배와 브라인드를

새로 설치해서 분위기가 한결 밝아지고 산뜻해졌다.

사우회는 12월 30일(수) 오후 사무실 확장을 축하하는 송년모임을 갖고 MBC의 지원과, 한 해 동안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렸다. 새 사무실은 '공부하는 방, 취미생활을 하는 방'으로 사용하는 한편, 활용도를 넓혀갈 계획이다.

2015 '송년의 밤' 12월16일(수) '가든 호텔'서 열려 사상 최대 617명 참석!

사우회 '2015 송년의 밤' 행사가 12월 16일 (수) 저녁 617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마포 '가든호텔'에서 열렸다. 김수량 회장은, "사우회 사무실을 현재의 24평에서 42평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작했으며, 사우회 창립 25주년을 기념하는 단행본을 발행하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원고를 접수하고 있다면서, 두 사업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MBC와 방송문화진흥회에 감사를 표했다.

안광한 사장은 "올해 MBC의 경쟁력

과 시청률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밝은 모습으로 선배들을 만나보게 돼 다행"이라고 말하고 "MBC가 한국을 대표하고 아시아를 이끌어가는 방송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우회 선배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송년의 밤에서는 회원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힘쓰고, 사우회 발전에 기여한 등산클럽(회장 박한성)과 바둑클럽(회장 고영일)이 김수량 회장으로 부터 공로상을 받았다.

'2016 회원 수첩' 제작-배포

사무처는 새로 만든 회원수첩을 '송년의 밤'때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회원들의 사진 수집에 심혈을 기울여 1,400여명의 회원 중 공(空)란을 15

명으로 줄여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순서를 가나다순으로 배열해 이름만 알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회장단-고문단 신년 하례 점심

사우회 회장단은 고문단과의 신년하례 모임을 1월 7일(목) '어상'에서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김수량 회장을 비롯해 임국희,이해걸 감사와 신대근,임주완,김용빈,이용구,백하현 부회장과 이수홍,우윤근,노서을,김민식 고문, 그리고

사무처 임직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김수량 회장은 "고문님들의 건경한 모습을 보니 반갑습니다. 지난 4년간 고문님들의 격려와 지도로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돼 고맙습니다"고 말하고 고문님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헝그리 복서’ 주방장 이야기



문 성 수(관리)

국내외 유명 인사들이 오가는 국내 최고의 호텔(메트로호텔, 신라호텔, 그린파크호텔, 힐튼호텔)에서 일하던 제가 1986년, 방송사에서 일하게 된 동기는, 경희전문대 호텔경영학과 졸업논문 결론 부분에 쓴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요리를 배워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겠다'는 저 나름의 결심이었습니다. 특급 호텔이나 1,2급 호텔엔 유능한 조리사가 많지만 회사의 구내식당은 실력을 갖춘 조리사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작은 씨앗이나마 심어보려고 선택을 한 것이 직원식당이었습니다. 입사 이후 오픈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어서 점심시간에 여의도 지역에 있는 단체 급식소에 가서 시식도 해보고, 주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먹으며 분석해보기도 했습니다. 호텔에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방송사에도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 줄 입사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MBC에 와서 저는 호텔에서와 같이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호텔에서 그동안 익힌 경험을 살려 양식과 한식을 접목하는 메뉴 개발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골고루 만족할 수 있는 메뉴를 하나씩 개발하는 것에서 재미와 보람도 찾을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좋아하는 메뉴와 싫어하는 메뉴도 알게 되어 식당을 찾는 직원들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메뉴 작성 시에 한식, 양식, 간식코너를 생각하며 꾸몄습니다. 한 달, 두 달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면서 양식은 300여종, 한식은 200여종 그리고 간식도 다양하게 만들어 제공하면서 분석하고 더불어 계절에 맞는 음식과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감안하여 식단을 짰습니다. 식자재는 매일 새벽에 직접 시장에 가서 품질을 눈으로 확인한 뒤 구입했으며, 최고의 신선도가 유지되고 좋은 곳에서 생산되는 재료라면 멀고 가까운 것을 떠나 어디든지 달려가서 구입했습니다. 거리가 먼 곳에 갈 때는 새벽에 각자 모

이는 장소를 약속해서 함께 갔는데 교통편이 요즘처럼 활발하지 않던 때라서 날씨가 안 좋기라도 하면 운전기사가 가기를 망설이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물건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즐거움을 가지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른 시간에 같이 시장에 가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가끔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꿈처럼 느껴집니다. 1960년 정월 새벽, 대구에서 무작정 상경하여 서울역 앞 국제회관에서 아침밥을 사먹고 있는데 처음 보는 분이 '주방에서 일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는데, 아침 갈 곳도 없던 처지라서 그분을 따라 간 것이 제가 요리와 처음 맺은 인연이었습니다.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일하면서 저녁이 되면 체육관을 다녔습니다. 권투를 배우러 다녔는데 당시의 꿈은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우승대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44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뜻밖의 교통사고를 당해 팔이 골절되어

두 달여 동안 깁스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군에 입대하게 되고, 군 생활 중 결혼을 하면서 권투선수의 꿈은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주방으로 돌아와 2급 조리사 면허를 딴 뒤 일본에서 요리를 전공한 워커힐 주방장 댁을 찾아가 큰 가르침을 받고 '훌륭한 조리사가 되겠다'고 결심하여 조리사 교육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서 배웠습니다. 그 결과 10여개의 자격증과 함께 조리사 1급, 지배인 2급 자격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13년간의 MBC 생활을 마치고 1999년 정년퇴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노동청에서 운영하는 산업교수에 지원하여 후진 양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MBC의 학자금을 받아 세 아이 모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큰 딸은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아들은 작가이자 금융전문가, 막내딸은 치과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일터를 제공해 준 MBC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제가 주방에서 일하는 동안 맛있게 먹어 주신 사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경·조사

■ 팔순 ■

허명강(관리)2/2 이한식(관리)2/9 하재률(업무)2/14 최경섭(관리)3/1
김창동(관리)3/6 권상기(미주)3/9 김영복(관리)3/13 김홍열(미주)3/18
장기욱(편제)3/21

■ 고희 ■

최성근(편제)2/2 전용수(편제)2/12 배상석(편제)2/18 신낙균(편제)2/27
김명수(편제)3/5 신종인(편제)3/10 목철수(보도)3/16

■ 회갑 ■

안호명(편제)2/1 정태성(보도)2/2 박노성(관리)2/4 최문순(보도)2/4
하동근(보도)2/5 변영우(편제)2/7 김재형(관리)2/8 채애립(관리)2/8
이성호(편제)2/12 조일수(ANN)2/19 이채원(관리)2/23 박 종(편제)2/26
이정준(보도)2/28 박승기(관리)3/1 방영희(편제)3/5 윤권중(기술)3/5
이우용(편제)3/7 김동수(보도)3/12 허 운(관리)3/13 최세훈(보도)3/22
박성숙(업무)3/27

■ 결혼 ■

조승필(관리)장남11/28 박병선(편제)딸12/5 홍성기(관리)딸12/12
김필환(관리)차녀12/13 서영호(보도)차녀12/19 원준재(기술)차남12/19
이형관(보도)장남12/19 김준수(기술) 딸 1/23

■ 부음 ■

박민정(ANN)모친상11/13 고장석(편제)장모상11/13 김동성(편제)장인상11/17
류종현(보도)모친상11/18 이성호(편제)모친상12/03 유삼열(부산)장모상12/04
강동균(편제)장인상12/15 이명자(편제)남편상12/20 정보균(관리)모친상12/27
신영철(보도)장모상1/2 변현규(편제)부인상1/3 변종민(기술)모친상1/3

회원 / 회비관리

■ 신규입회 ■

金順丹(관리) 010-9292-9978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394번길 11, 103-1105 (e편한세상)
金榮雲(기술) 010-9199-5696
광진구 구의강변로 64, A-3502 (구의아크로리버)
金顯國(관리) 010-7370-5883 02-2683-5883
광명시 새터로70번길 5, 205호 (광명동, 덕산빌라)
朴漢根(기술) 010-526-4771 02-864-7156
금천구 독산로 300-2
徐泰健(기술) 010-8997-0862
마포구 백범로37길 12, 107-1604 (신공덕, 삼성래미안A)
成慶燮(보도) 010-3778-0157
은평구 연서로 44길 55, 428-702 (폭포동, 힐스테이트)
辛眞奎(기술) 010-9095-4051 02-6095-5175
양천구 목동서로 130, 407-1502 (목동,목동신시가지A)
李相龍(보도) 010-8955-1694 02-576-0057
강남구 도곡로7길 19, 송암빌리지 601호
李善宰(보도) 010-5385-3508 02-533-0503
서초구 신반포로19길 6, 30-515 (반포동,신반포A)



성 하 권(편제)

11월15일(일) 간암으로 별세. 향년 80세. 1971년 MBC에
입사하여 23년간 소도구실 전문가로 근무하다가 1994년
에 정년퇴직했다

李成吉(관리) 010-8593-8755 070-4076-2690
동작구 상도로 346-1, 102-1504 (엠코타운, 센트럴파크)
李在訓(기술) 010-8944-4391 02-6741-8674
구로구 새말로 25, A-1302 (SK 뷰 아파트)
林秉吉(보도) 010-5384-0021 02-2646-3812
용산구 백범로 341, 102-1004 (원효로1가,리첸시아용산)

■ 평생회비 ■

김홍수(편제)11/5 이상용(보도)11/26 이상혁(업무)11/28
이선재(보도)12/4 이화섭(관리)12/16 김순단(관리)1/4
신진규(기술)1/5 임병길(보도)1/5 서태건(기술)1/6
김영운(기술)1/7 이성길(관리)1/8 이재훈(기술)1/10
박한근(기술)1/11

■ 연회비 ■

11월 : 권수훈(15) 김금봉(22~23) 김종연(16~17) 박정섭(15~25,80세납부끝)
박한성(15~16) 백재인(14~15) 송영수(18~19,80세납부끝)) 故여태성(14)
유흥렬(12~15) 이승대(15,80세납부끝) 이영일(11~15) 故이영환(03~14)
이용재(20~22,80세납부끝) 이재원(15) 장인순(25~27) 진두범(13~17)
진수웅(14~15) 최승우(13~15,80세납부끝) 하재률(15)

12월 : 강의원(15) 권오용(편제,16) 권윤성(15~16) 권혁화(16) 김상욱(16)
김세일(13~14) 김순홍(14) 김시용(15) 김우중(15) 김재식(14) 김종복(13)
김종수(16) 김현국(15~23,80세납부끝) 김희을(15) 박승선(15) 박종완(15)
박창순(15) 박한성(17) 방남순(14~15) 선남준(12~16) 손도정(16)
송인의(15) 양홍열(16) 오학식(15) 윤상준(17) 이대교(16) 이동섭(15)
이두표(16) 이보근(18) 이상세(16) 이승문(16) 이용구(15~16) 이용재(13~15)
이화섭(13~14) 임부영(14~15) 장두형(14) 장우식(15) 정대용(16)
정병준(16) 최경섭(16,80세납부끝) 최승일(16,80세납부끝) 최영복(15)
최영성(16) 최영호(15) 최한상(01~16) 하민웅(15) 하영현(16) 홍순흥(14~16)

전화/주소 변경

편제 : 김상균 강남구 삼성로 150, 103-1306 (대치동,미도맨션)
이명재 구로구 경인로 643, 203-704 (동아아파트)
보도 : 김부영 마포구 포은로 27, 501호 (합정동)
정 진 031-266-1123
최원두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70, 성원그랜드오피스텔 1031호 (중앙동)
기술 : 최현곤 서울 중구 청구로 64, 111-702 (신당동,청구e편한세상)
업무 : 이용구 하남시 대성로 281 (덕풍동)
최창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577번길 22, 2-203 (괴안동,월드빌라)
최태규 010-2553-5753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213번길 12, 224호 (장항동,한솔프리미엄)
관리 : 서기석 031-896-5303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91, 110-302 (풍덕천동,신정마을1단지)
은정기 010-2883-9684
이중구 영등포구 선유서로 6, 101-1005 (문래동5가,현대3차A)
춘천 : 강 건 010-3632-6601 춘천시 사북면 인람리 솔바우1길 163

‘캘리그래피’ 동호회 회원 모집

사우회는 최근 인기 직종인 '캘리그래피' 는 그리스어입니다. 동호회는 인원이
최소한 10명은 돼야 시작할 수가 있
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
는 뜻으로, 어원은 '아름다운 서체'라 다릅니다. 지도: 정인영

MBC에
묻어둔이야기

사우회 창립
25주년 기념

‘MBC에 묻어 둔 이야기’가 곧 나옵니다

사우회원 여러분들이 MBC 재직 중 겪었던 다양한
얘기들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나옵니다.

현재 편집위원회에서 작업중인 이 책은 2월 26일
정기총회 때 회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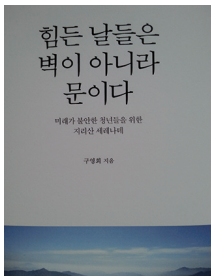
회/원/동/정



우종범(편제) 지난해 11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교육방송(EBS) 신입사장으로 선임되었다. 우 회장은 MBC라디오 본부장, 제주MBC 사장을 역임했으며 88관광개발 감사로 재직 중이었다.



구영희(보도) 이 땅의 고달픈 청년들이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바람직한지에 관해 체험적 조언을 들려주는 책 '힘든 날들은 벽이 아니라 문이다'를 지난 해 12월에 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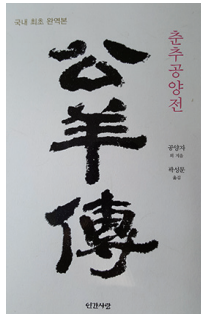


정수열(편제)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화천생태영상센터장으로 취임했다. 주민에 대한 미디어교육과

청소년 생태체험교육을 전담하며 임기는 3년이다.



곽성문(보도) 孔子가 편찬한 '春秋'를 해설한 '春秋公羊傳'을 국내 처음으로 완역(完譯), 출간했다.



78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 3년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고 한다.



임국희(ANN) MBC출신 여성 아나운서, PD모임인 초록회가 해마다 시행하는 '자랑스런 후배상' 시상식을 12월 3일 가졌다.

이번 수상자는 '5시 이브닝 뉴스'를 진행하는 22년차 보도국 박선영 기자로 23번째 수상자다.



박광성(업무)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총장.

12월 25일, 2015년 '자랑스러운 한양언론인상'을 수상했다.



김석진(보도) 1월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7년 3월까지. 1984년 MBC 기자로 입사해 모스크바 특파원, 사회부

장, 연합뉴스TV 보도본부장 등을 거쳤다.



우윤근(업무) 사우회 고문

MBC-경향신문 광고인 출신들의 모임인 문경회 임원 모임을 12월 11일 (금) 서울 충무로에 있는 한정식 '동심'에서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 문경회 2016년 신년회를 1월 28일(목) 6:00 세종호텔에서 갖기로 했다.



美洲지회 지난해 12월 12일 LA코리 아타운 Rotex Hotel에서 열린 송년모

임에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 國家葬 헬기중계記



김종길(편제) 필자가 MBC헬기 촬영을 담당한 19년(1996~2015)동안 대통령 서거로 인한 영결식이 세 번째다. 벌써 6주기가 된 노무현 전 대통령(2009.5.23)서거 때는 운구과정을 봉하마을~천안(MBC), 천안~서울국회(KBS)로 구간을 나누어서 헬기중계(POOL)를 했다.

무진동 카메라 장착 헬기를 보유하지 못했던 SBS는 당시 독자적인 헬기 취재와 중계를 해야 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때는 KBS헬기가 운구차 이동과정(국회→국립현충원)의 POOL을 담당했었다. 이번에는 KBS헬기가 장기간 안전도검사기간이라 MBC헬기가 지상과 방송의 POOL을 담당하게 되었다.

▶11/25 오후 1시 날씨 흐림. 남산에 위치한 헬기수신차량과 연계하여 마포, 국회, 상도동, 국립현충원 코스로 이동하며 마이크로웨이브 이상 유무를 체크했고, 생방도중 급유장소로 김포공항/잠실고수부지 헬기착륙장 두 곳을 확정했다.

▶11/26 12:00 김포공항. LTE구간(서울대병원→광화문) 이후 구간을 헬기로 커버하며 POOL중계는 시작부터 끝까지 ON-AIR(생방)상태의 안정된 영상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엄청난 집중력이 요구되고 생리적인 현상까지도 감수해야 하므로 당일 점심은 모두 먹지 않고 헬기에 탑승했다.

▶13:30 심한 눈보라로 화면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날씨에 마포 5거리 상공에서 광화문을 돌아 나오는 경찰 오토바이 행렬과 영정사진 차량, 뒤이어 국화로 장식한 운구차량이 보였고 본격적인 헬기중계가 시작되었다.

마포대교를 지나 국회정문 입장까지는 헬기소음에 관계가 없으므로 낮은 고도로 차량을 추적하고 영결식이 시작된 뒤 김포로 복귀하여 급유를 했다.

사전에 약속된 조종을 발사한 뒤 국회에서 영구차가 출발하는 일정보다 20여분 전에 도착한 헬기는 영결식 행사에 소음지장이 없는 고도 2000feet를 유지했다.

예정 시간보다 40분가량 지체되어 국회를 나선 운구차량은 파천교를 지나 상도동으로 향했다. 헬기 샷의 노하는 국회 입구 또는 국립현충원, 김영

삼도서관 등 시청자들에게 위치설명이 필요한 곳에서는 FS, 긴 도로의 주행 장면은 TFS→TS 위주로 화면을 구성해 주는 것이다.

교통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도터널 도로위에 운구차가 멈추고 영정차량만 비좁은 골목의 사저로 향한 사이, 헬기는 미리 급유차를 대기시켜 놓은 잠실헬기착륙장으로 가서 시동을 켜 채로 두 번째 급유를 했다. 급유하는 사이에 상도동 사저를 담당한 KBS 중계차의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지켜본 우리는 영정이 돌아 나오기 시작한 사저는 포기하고 운구차 주변에 많은 시민이 운집한 김영삼도서관으로 향했다.

정확히 8분이 소요된 급유 뒤 현장으로 복귀하며 첫 샷(Shot)은 도서관 건물 외벽의 대형현수막사진TFS→운구차, 시민TFS이었다.

어둠이 내린 시각에 도착한 국립현충원에는 대형천막으로 안장식 준비가 되어 있었고 도착시간이 애초 계획보다 약 50분정도 늦어진 시간이었다. 이대로는 헬기영상이 어두워서 방송에 부적합할 것 같은 걱정이 앞섰다. SBS가 담당한 안장식장을 뒤로하고 헬기는 다시 잠실헬기착륙장에 가서 3번째 급유를 하고 급히 현장으로 복귀했다.

이미 어두워진 장지에는 방송용 조명과 주변 불빛들이 추운날씨를 감싸 안고 엄숙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헬기소음을 염려하여 고도를 높여서 선화촬영을 하는 사이 "헬기철수"라는 전달을 받았다.

6년 전, '독도세계요트대회' 울릉도 출장 중 갑작스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울릉도→봉하마을→울릉도→독도를 오가며 가장 긴박하면서도 길었던 헬기취재, 생중계를 경험한 뒤 이번이 두 번째로 긴 헬기탑승이었다.

김포공항으로 복귀하는 기내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한 세대를 품어준 한 국정치사에 남긴 거인들의 족적을 반추해 보았다. 필자가 대학시절을 보낸 1970년대부터 치열한 직장생활을 해온 2000년대 중반까지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3금시대의 유산이 남긴 역사적 교훈. 계파정치로 한국의 정치지형을 짜고 갖은 풍상과 영욕의 세월을 겪은 뒤 영면에 든 거인들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 할 남겨진 사람들. '화합과 통합'이라는 화두의 유지를 남긴 그의 울림이 크다.

초저녁, 어둠을 삼킨 서울야경이 시리도록 환하게 단풍이 든다.

차도르 밖으로 폭발하는 젊음



박찬순(편제)

우리 나쁜 사람들 아니라고 꼭 전해 주세요."

초여름까지도 머리에 흰 눈을 이고 있는 테헤란의 명물 토찰산에서였다. 언제나 매캐한 매연으로 목이 아팠던 나는 어쩌다 북쪽 하늘 밑 가까운 곳에서 그 산을 발견하고는 택시를 타고 단숨에 달려갔다. 스키어들 사이에 끼어 케이블카를 타려고 언덕을 오르다가 임시공부 도중, 머리를 식히러 나왔다는 한 무리의 여고 4년생들을 만났다. 세련되고 화려한 색깔의 히잡을 머리에 걸친 동만 동한 그들은 엉덩이 눈썰매를 타러 왔다고 했다. 그저 점퍼 자락을 깔고 앉아 눈썰인 언덕에서 미끄럼 타듯 내려오면 된다고. 얌전하게 검은 차도르를 두른 학생들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보는 순간 이미 눈치 챘다. 해맑은 소녀들의 눈부심은 어떤 검은 가운 안에도 가둘 수가 없다는 것을. 내가 코리아에서 왔다고 했더니 한 학생이 휴대폰 액정 화면을 열어 보여주었다. 드라마 '꽃남'의 이민호 사진이었다. 학생들은 내 손을 잡고 한참을 동동 뛰며 외쳐댔다. '양금(대장금)!', '주몽!',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학생들에게 점심도 얻어먹고 모처럼 하루를 만끽했다. 헤어질 때 '꽃남'의 우리 텔런트들 못지않게 예쁜 학생이 그 말을 한 거였다. '우리 나쁜 사람들 아니라고 전해 주세요.' 그것도 거의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로. 그때 문득 머리를 스치는 생각 - 무엇이 어린 소녀로 하여금 나라 이미지를 걱정하게 만든 것일까.

아, 소녀뿐 아니었다. 택시를 타면 청년, 중년, 노인 기사 할 것 없이 모두 내게 물었다. '이란 어때요?' 나는 의문이 앞섰다. 인구는 남북한을 합친 것과 비슷하면서도 한반도의 일곱배 반이나 되는 국토, 세계 제2위의 산유국, 제 4위의 천연가스 매장량. 무엇보다 의학, 문학, 수학, 천문학, 철학 등의 분야에서 서구가 20세기에 이르러서야 도달했던 인류 지성의 고지를 13세기에 이미 돌파했던 사람들. 오마르 하이얌, 하페즈 같은

세계적인 시인들과 키아로스타미와 마흐말바프 같은 명감독을 배출한 문화 민족이 어쩌다 이토록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을까.

몇 군데 아르바이트를 겸업하고 있다는 청년 기사들은 하나같이 '테헤란에서 먹고 사는 일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제 제재로 앞날이 짝 막혀있다. 해외취업이나 유학을 가려해도 비자를 받을 수 없다. 모조리 포기했다. 취업도, 결혼도, 내집 마련도. 우리 삼포세대다.' 그들은 조국의 현실을 내게 질문 형식으로 알려주기도 했다. '세계 2위의 산유국에서 정유기술이 없어 국내 소비량의 40퍼센트나 되는 휘발유를 수입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더 잘 살게 해주겠다고 일으킨 혁명이 4, 5백만 명의 디아스포라를 만들어 낸 것은 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수심이 많아 보이는 젊은이들이었지만 멀리 극동에서 온 여행자에게는 금세 속내를 털어놓으며 살가운 정을 베풀었다. 골레스탄 궁에서 만난 미대생 코사르와 그 친구들은 두 번째 만남 때 '환영'의 표시라며 장미꽃다발을 들고 나왔다. 그들은 봄날에 두꺼운 코트를 입은 나를 바자르로 데려가 옷을 골라주었다. 테헤란 대학교 젊은 교직원들은 내게 학교 출입증을 쥐서 모든 학내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해줬다. 강의실에서 만난 학생들의 감수성 또한



〈테헤란 여고생들〉

인상적이었다. 테헤란 대학에서 한국 문학 강의를 끝내고 며칠 뒤 국제 도서전에서 책을 고르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어디선가 우리말로 '교수님!'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어보니 먼발치에서 한 청년이 달려오고 있었다. '교수님 강의 들은 후세인이에요. 당신 페르시아 이름 불러주어 우리, 꽃의 나라 되었어요. 우리도 한국에 꽃이 되고 싶어요.' 그러자 생각났다. 그 강의에서 나는 키아로스



〈테헤란 대학생들〉

타미의 영화 속 꽃과 꽃을 든 부조 속의 다리우스의 모습을 보여주며 말했다. 현대에 필요한 건 관용의 정책을 내세웠던 옛 페르시아의 꽃의 리더십이라고. 그러고 나서 학생들에게 김춘수의 시 '꽃'을 낭독하게 했었다. 이런 순수한 젊은이들을 만나면서 내 안에서는 테헤란이 모락모락 자라나고 있었다. 처음 도착했을 때 눈앞에 닥친 매연과 꼬질꼬질한 거리 풍경으로 볼 때는 좀체 정들 것 같지 않던 도시였는데.....마치 어른들이 망쳐놓은 한 가정의 이미지를 만회하려고 그 자식들이 안간힘을 다해 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학생들은 또한 국가적인 어젠다에 분명한 의사 표시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2009년, 부정선거 규탄 시위로 녹색운동을 일으킨 전력을 갖고 있다. 이번에는 핵협상 타결을 이끈 자리프 외무장관이 도착하던 날 공항으로 마중 나가 환호를 보냈다. '핵보다 민생'이라는 메시지를 확실히 한 것이다. 지도자가 이처럼 환영을 받은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시 쓰기 열풍이었다. 마치 제5공화국 시절, 우리가 그러했듯.

경영대생, 공대생, 법대생, 의대생, 약대생 할 것 없이 시를 쓰고 시사 풍자 클럽에 가입해 왕성하게 활동했다. 과연 시의 나라였다. 테헤란에만 백여 개가 넘는다는 시 창작 모임, '이란 시인의 사회'에서는 '깨어있는 시민'이 되고자 하는 몸부림이 느껴졌다. 그 대열에 중고생들도 빠지지 않았다. 타냐의 시는 여중생의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우리들 운명의 여신은 제 역할을 잊고 잠들어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번영

을 찾을까.' 젊은이들은 근엄하고 계몽적이기만 한 국영방송 대신 위성으로 전 세계 채널을 두루 접하고 있었다. 차를 몰면서 팝송이나 상송을 흥얼거렸고 더러는 케이팝을 열창하기도 했다. 외국 가수들의 콘서트가 금지돼 있어 공연을 보러 비행기 타고 두바이까지 갔다. 아무리 해외 사이트와 페이스 북을 막아 놓아도 차단벽을 풀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었다. 대학가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은 여대생들이었다. 전국의 수재들이 모인다는 테헤란대는 여학생 비율이 60퍼센트나 되었다. 검은 차도르 안에서도 건축가, IT 전문가, 오일엔지니어, 수자원 연구가가 되겠다는 이들의 꿈은 싹이 트고 줄기를 뻗어가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외국으로 나가 조국에 대해 비판의 예봉을 휘두르고 있는 젊은 망명 작가들도 있었다. 정치범 부모를 둔 탓에 교도소에서 태어난 사하르 들리자니는 소설 『자카란다 나무의 아이들』에서 혁명기 이란인의 상처와 고통을 생생하게 드러내면서도 조국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잊지 않는다. 차도르 쓰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테헤란 대학에서 해고당한 젊은 영문과 교수, 아자르 나피시는 소설 『테헤란에서 롤리타를 읽다』로 단숨에 유명 작가가 되었다. 자신이 주도했던 금서 클럽에 대한 회고담인 이 책은 테헤란에 해방공간을 마련하고 자유의 숨결을 불어넣는다. 작가 마나 네에스타니는 검열 속에서 자라나 스스로를 그 안에 가두게 되는 검열문화의 폐해를 삽화로 명쾌하게 그려내 개혁의 상징이 되었다. 이들 모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시린 에바디'의 뒤를 이은 인권운동가들이다. 차도르 밖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젊은 그들. 그 폭발력이 어디까지 튕겨져 나가 소녀가 염려하던 국가의 이미지를 새롭게 바꾸어나갈지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지켜보고 있다.

●신년인터뷰●

MBC 예능PD 1호 차재영

MBC예능PD 1호를 찾아 간 곳은 경북 경산시. 약속된 장소인 대형마트 1층 커피숍에서 먼저 손을 흔들지 않으셨더라면 자칫 몰라□을 뻔했다. 86세라는 연세에다 큰 수술을 받은 후 요양 중이다 보니 현업 시절의 당당하던 체구(體軀)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모습에, 목소리마저 찾아들어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신경을 귀에 집중해야했다. 그러나 선배님의 특징인 순박한 표정과 소년같은 미소는 예나 이제나 변함이 없고, 현업시절의 얘기를 하실 때는 음성 톤이 두 옥타브쯤 올라가는, '천상 PD' 차재영 선배님. 사소한 일조차 놀랄 만큼 상세하게 기억하고 계신 덕분에 서너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방송은 처음부터 쇼 파트에서 시작하셨나요?

나는 해군군악대 출신이고 음악에 대한 흥미와 재능도 좀 있었고 해서 그 쪽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62년도에 KBS TV에 처음 들어가서는 어린이 프로, 퀴즈프로 등등 안 해본 프로가 없어요. '흠린퀴즈'라는 프로를 할 땐데 당시 1등 상품이 TV 한 대야. 그 때는 TV도 수입허가를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었는데 '설마 1등이 나오겠어?'하고 품으로 TV를 걸었는데 웬걸, 이화여대생이 딱 1등이 돼버렸어. 생방송인데 TV가 있어야 주지. 할 수없이 방송에서는 모니터를 주고 1년 후에 PYE TV를 수입해서 정식으로 상품을 준 일이 있었지.

-KBS에 계시다가 MBC에 오셔서 처음으로 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었나요?

개국 쇼를 했어요. 송 해, 이순주가 사회를 봤는데, 두 사람이 서울MBC 구경하러 부산에서부터 올라온다는 스토리로 구성을 하고 중계차로 녹화해서 개국 당일에 방송했지. 중계차가 OB밴이라고 집채만큼 커서 거리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 봐. 그래서 MBC를 과시하려고 일부러 시내 일주도 하고 그랬어요. 내가 그 중계차를 바지선에 싣고 남이섬으로 녹화하러 갔다가 바퀴가 물에 빠져서 건져 올리느라고 고생을 한 생각을 하면 어휴, 근데 개국 쇼 테입이 지금 없잖아. 그 땐 방송 끝나면 바로 테입을 지워서 썼으니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한심한 일이야? 그 중요한 테입을 말야.

-맞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그 후엔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셨나요.

그 때 쇼 프로그램이 '후라이보이 쇼' '토요일 토요일 밤에' '스카이스' '오란쇼' '크라운쇼' 등 여러 개가 있었는데 나는 '바라이어티 결정판, 쇼 반세기'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내가 배삼룡 씨를 많이 썼는데, 당시에 안무를 담당하던 분이 코미디언이라고 누구를 소개하는데 딱 보는 순간 뭔가 되겠더라구. 그래서 춘천에 있던 배삼룡 씨가 내 프로를 통해 TV에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근데 두 번째 녹화하던 날, 배삼룡 씨가 분장실에서 나오질 않아. 내려가 봤더니 사람들이 그 사람을 뺨 둘러싸고 난리들이야. 그 때 '당신들 뭐요?'하니까 '돈 받으러 온 사람들'이래. 가만 보니까 그냥은 안 되겠어. 그래서 '당신들 때문에 녹화에 지장이 있어서 앞으로 이 사람은 안 쓸테니까 데리고 나가라'고 호통을 치고 나와 버렸어. 그랬더니 잠시 후에 대표라는 사람이 나한테 오더니, '저희들 다음 주부터는 일체 안 올테니 이 사람을 좀 많이 써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하고 사정을 하는 거라. 그래서 배 씨가 계속 출연을 했는데 석 달쯤 됐나?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돈뭉치를 싸갖고 와서 배삼룡 씨 스케줄 잡으려고 난리들이야. 그렇게 인기가 바뀌더라구.

-배삼룡씨 외에도 TV에 데뷔시킨 연예인들이 많으시죠? 특히 잊히지 않는 사람은요?

김세레나, 문주란, 이상한, 이상해, 권기욱 등 많은데, 당시 '김추자 간첩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김추자라는 신인가수를 발굴해서 노래 편곡도 내가 하고 안무도 직접 지도하면서 키웠는데 실력이 있으니까 상당히 유명해졌어요. 근데 뜬금없이 '김추자가 노래할 때 하는 요상한 손짓이 간첩들과 교신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인기가 있다 보니 시기를 받은 거지. 그런 소문이 나니까 어느 방송에서도 김추자를 쓰질 않아. MBC에서도 '김추자 썼다간 간첩으로 몰린다'고 해서

기피했어요. 그 때 어느 날, MBC 로고가 새겨진 차를 타고 돈암동 김추자네 집으로 갔지. 집 앞에 이르니까 우리 기사가 '차 선생님, 저쪽에 있는 녹색차가 남산(중앙정보부) 차예요. 그냥 돌아 갑시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럼 여기서 기다리세요'하고는 집 앞으로 가서 벨을 누르려니까 거기 있던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MBC에서 왔다' '왜 왔느냐?' '방송 출연 상의하러 왔다'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침 김추자가 두 사람에게 잡혀서 나오더라구. 그 때 '잠깐만 있으라'고 하고는 김추자에게 '내가 너 오늘 출연 준비 다 해놓고 있을테니 5시까지 와라'고 얘기한 뒤에, 옆에 있는 남자들에게도 '얘는 오늘 방송해야 되니까 5시까지 꼭 보내줘야 돼요' 라고 말하고는 회사로 돌아 와서 일단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렸지. 5시가 됐는데 김추자가 나타난 거야. 그 때 녹화를 하는데 일부러 '난 아니야'라는 노래를 부르게 해서 녹화를 하고 방송이 나갔지.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야. 워분들도 '야, 네가 뭘 믿고 김추자에게 '난 아니야'라는 노래를 부르게 한 거야? 너 이제 잡혀가서 죽었다' 이러는 거야. 그렇지만 난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으니까 내 생각대로 한 거지. 이게 내 식이야. 난 원래 남 안하는 걸 좋아하거든.



-윤복희 공항 납치 사건도 유명한 얘기였죠?

그 당시 윤복희는 미국에 살았는데, 한국에 올 때면 꼭 TBC에만 출연을 해. 전속도 아닌데. 근데 어느 날 윤복희가 '쇼쇼쇼'에 출연한다는 예고를 봤어. 그 때 은밀하게 알아보니 몇 일某시에 김포공항으로 입국한다는

거야. 그래서 덩치 좋은 신입사원 다섯 명에게 꽃다발을 한 개씩 들려서 김포공항으로 나갔지. 작전 계획을 짰는데, '내가 저 쪽 제작진과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 당신들은 윤복희가 나오자마자 둘러싸고 택시를 태워 MBC로 달려라. 우리 서로 모르는 사이야' 이러고는 시침을 떼고 TBC 쪽으로 가니까 '차 형, 웬일이요?' 그래서 '미국에서 손님이 온다고 해서 왔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나왔소?'하니까 '윤복희가 오늘 와요' 그래서 '어, 그래요' 하고 한참 후에 저쪽에 윤복희가 보이는 거야. 그 때 싸인을 했지. 우리 팀 다섯명이 우루루 덩벼들어 윤복희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저 쪽에서 깜짝 놀라 달려오고 삼시간에 난리가 난 거지. 안 되겠어, 그래서 윤복희 매니저를 불러서 '얼마 전에 육 여사가 돌아가셨잖나. TBC에 가기 전에 국립묘지 참배부터 시켜라. 그래야 윤복희 이미지도 좋아진다. 그리고 나는 회사로 돌아 갈테니 저 쪽도 돌아가라고 하고, MBC나 TBC 중 어디로 갈지는 본인에게 결정하도록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간곡하게 말했어요. 매니저가 들어보니 내 얘기가 일리가 있거든. 그래서 저쪽에 가서 '차재영이가 포기하고 그냥 간다고 하니 국립묘지 들러 참배하고 가겠다'해서 양쪽이 다 돌아갔지. 그리고 나서 나는 얼른 국립묘지

앞에서 기다린 거야. 한참 후에 윤복희가 참배를 마치고 내려 오길래 그 차를 얼른 탔지. 그리고 설득을 한 거야. '너랑 네 오빠 윤항기,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MBC에 매주 출연시켜 줄게. 너 내 성격 잘 알잖아. 그러니까 지금 바로 MBC로 가자, 응?' 그땐 윤항기가 별로 인기가 없었거든. 그렇게 아무리 설득해도 '안돼요, TBC랑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죠' 이러는 거야. 윤복희가 착하잖아. 근데 차 속에서 계속 MBC 얘기를 하니까 운전기사가 착각을 한 거야. 차를 MBC 앞에다 띄워 세우잖아. 그래서 '야, 일단 내리자. 내려서 얘기하자구' 이러면서 윤복희를 끌다시피 데리고 스튜디오로 갔지.

거긴 이미 후라이보이가 준비하고 있었거든. 그레 바로 생방송에 들어보냈지. 한참 방송을 하는데 TBC에서 이봉조가 쫓아 왔어. 스튜디오로 들어오더니 뭐라 뭐라 해. 그레 내가 부조에서 후라이보이에게 '이봉조 좀 쫓아내라'고 했지. 후라이보이가 마이크에 대고 '이봉조씨 나가주세요'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놀래서 나가더라구. 내가 그렇게 못된 놈이라구. 허허허.

-윤복희 씨와 한 약속은 지키셨나요?

그럼. 윤행기를 약속대로 매주 출연 시켰지.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아버지 윤부길 씨의 묘도 내가 찾아줬잖아. 윤행기 얘기를 들으니까 '아버지가 강원도 어디에서 쏘 공연 중에 돌아가셨는데 자기들이 어릴 때라서 아버지 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야. 사람을 시켜 알아보니까 아마 그 근처 공동묘지에 묻혔을 거래. 그래서 두 사람을 데리고 아버지 묘를 찾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 온 공동묘지를 다 뒤졌지. 그랬더니 쪼꼬만 비석에 '윤부길의 묘'라고 나오더라구. 얼마나 감동적이야. 그걸 다 녹화, 편집해서 '후라이보이 쏘'에 내보냈지. 그랬더니 '그런 개인적인 얘기를 왜 쏘에서 방송하냐'고 또 위에서 난리야. 그 땐 다큐멘터리라는 개념도 없을 때잖아.

-좋은 일하고도 혼 나셨군요. 하춘화 씨도 데뷔시키셨죠?

그 날 원래 조미미가 출연하기로 돼 있었는데 안 왔어. '대신 누구를 세우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배삼룡이가 '노래 잘하는 애가 있다'는 거야. '그레? 데려와 봐' 데려왔는데 진짜로 쪼꼬만 애야. 배삼룡이가 '노래를 시켜보래'. 그래서 '너 무슨 노래 할 줄 아니?'했더니 미소라 히바리(美空ひばり) 노래를 하겠대. '그레? 해 봐' 그랬지. 애가 노래를 하는데 '어? 기가 막혀'. 그래서 조미미가 하려던 '목포의 눈물' 노래를 연습시켜서 녹음했지. 근데 중학생을 쏘 프로에 못 세우잖아. 소품실에 연락해서 흰 저고리에 까만 치마를 입혀서 무대에 세웠는데 클로즈업하면 어린애라는 게 보이니까 계속 폴샷으로 녹화했지. 방송이 나가니까 '야, 거 누군지 노래 잘 한다'고 난리야. 그 때부터 하춘화가 인기를 타게 됐지. 나중에 이환의 사장이 김포천 부장과 나를 불러서 자기 고향인 '영암아리랑'을 누구에게 시킬까 상의하길래 '하춘화가 좋겠다' 이라서 더 유명해졌어요. 하춘화 고향도

영암일걸, 아마?

-시민회관 화재 당일에도 쏘 연출을 하셨나요?

그럼, 불났을 땐 무대 뒤에 있었는데 천정에서 갑자기 불이 짹악 내려오더라구. 그러더니 곧바로 무대가 뿔뿔게 되는 거야. 가수들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하고 옆에 있는 문을 열었는데, 가수에게 싸인 받으러 온 사람들이 짹 찼어. 나갈 수가 없어. '불났다'고 해도 안 믿어. 불길이 확 올라오니깐 그때 서야 나가려고 아우성인데 나갈 수가 있나. 복도 양쪽에 창문이니깐 그걸 깨면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문만 찾는 거야. 한참 가다보니 어떤 사람이 아이 셋을 데리고 두 아이는 안고 가는데 한 아이가 쳐지는 거야. 그레 내가 개를 안으면서 '밖에서 만나자'고 하고 겨우 나왔는데 그 와중에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있나? 날은 어두워지고. 그레 개를 데리고 택시로 우리 집으로 왔지.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쏘가 끝나자마자 TV를 끄기 때문에 불이 난 걸 모르는 거야. 날더러 '웬 애를 데려왔냐구' 그래서 '불이 나서 이차저차했다'고 애길해도 처음엔 믿질않고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구. 우리 집에도 고만한 막내가 있었는데 애들을 한 방에 두니까 둘 다 울기 시작해서 정신이 없어. 둘이서 한 아이씩 안고 꼬박 밤냈지. 다음 날 아침 생방송에 애를 데리고 나가서 방송을 하는데 갑자기 미술투 직원들이 튀어 나오더니 개를 붙들고 막 우는 거야. 그 직원은 딸을 잃어버리고 밤새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죽었나보다'라고 포기했었다.

-쏘 프로그램에 '이산가족 찾기' 코너를 넣으셨더군요

우리 악단원 중에 트럼펫을 부는 이창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려서 고아원에서 자랐대. 이 친구가 '헤어진 가족을 찾고 싶은데 도와줄 수 없겠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트럼펫 솔로로 고향노래를 한 곡 보낸 뒤에 후라이보이와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 기억으로는 어려서 꽤 잘 살았던 것 같고....등등' 얘기했지. 그레 방송이 되니까 호남정유 모 과장이라는 분이 전화를 했어, 자기 동생이 월남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찾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개인적으로 해군에 수소문해서 배타고 월남한 사람들 중에 비슷한 사람을 찾아봤지. 한참 만에 비슷한 사람을 찾았어. 그 사람을 데려와서 분장실에 앉혀놓고 그 과장을 생방송 스튜디오로 불러서 이것저것 물어봤지. 형제가 맞아. 그레 두 사람이 만나서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석



달 후에 김해에 있는 이창수 친척에게서 연락이 왔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창수 아버지가 탄광을 해서 돈을 잘 벌었는데 사고로 부부가 죽었다. 그러니까 친척 중 한 사람이 이창수를 고아원에 보내고 탄광을 자기 이름으로 해버린 거지. 하여간 이창수도 일부 가족을 찾았고 그 외에도 한 20명 정도 찾아줬지.

-KBS 이산가족 찾기보다 한참 앞서서 기획하신 좋은 내용인데 왜 그만두셨나요?

남산에서 못하게 했지. 북한 간첩들이 이 프로를 이용해서 접선을 한다는 거야. '누구를 찾습니다'하는 자막 나가잖아. 그걸 이용한다. KBS에 있을 때도 염서를 통해서 누구를 찾는 프로를 했었는데 그 때도 남산에서 못하게 한 일이 있어서 그만 뒀었지.

-방송 자체를 못할 뻔한 적도 있으셨다고요

어느 한가 남양특집 쏘를 만들려고 남들이 생각도 못 한 방법을 썼어. 크레인 실는 트럭에 중계차를 얹고 가수도 태워서 강원도부터 해안을 따라 부산까지 가면서 촬영을 한 거야. 며칠 걸려서 한 시간짜리 프로로 멋있게 만들었는데 방송 전 날 보안사에서 와서 테이프를 달래. 보안구역이 녹화돼서 압수한다. 기가 막힐 일이지. 원본은 그렇게 뺏기고 나중에 예비 테이프를 적당히 편집해서 방송을 내긴 냈어.

-쏘 아닌 프로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 '김수미의 오늘의 요리'라는 프로를 했지. 이종임, 한복선 씨 등과 같이 했는데 인기가 좋았다구. 그 당시엔 마트가 없고 구멍가게가 많잖아. 우리 프로가 방송되고 나면 그 날 쓴 재료가 가게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가게 입장에서선 재료를 미리 알면 많이 사다놓을 수 있잖아. 그 정보를 알리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부탁이 오고 그랬어요. 또 소품이 전부

먹을 것이다 보니 방송이 끝나고 나면 먼저 집어가는 놈이 임자야. 한번은 스텝 소개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손이 쭈욱 들어오더니 낙지를 집어가는 게 방송된 적도 있었다구.허허허

-예능PD로서 하고 싶은 것은 다 하신 셈인데 그래도 아쉬움이 남아있으신가요?

내가 못 이룬 게 세 가지 있는데, 첫째는 윤여정을 가수로 만들려다가 실패한 거. 그 여자 목소리가 걸걸하잖아. 내 생각에 가수로 만들면 특이한 존재가 되겠더라구. 그레 노래 연습을 시켜서 방송했지. 난리가 났어. 이게 무슨 가수냐고. 그래서 못했고 두 번째는 양희은이가 매일 새벽기도를 하면서 암과의 싸움을 끈질기게 하고 있다는 애길 듣고 투병과정을 다큐로 만들고 싶었어. 그레 기획안을 올렸지. 그랬더니 '이게 무슨 프로가 되냐'고 결재를 안 해줘. 세 번째는 이미자와 그 딸을 생방송 무대에서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 이미자는 딸 얘기만 나오면 외면을 해.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안 그럴 거 아냐. 엄만데. 그래서 그 남편에게도 허락을 받고 두 사람만 모르게 하고 방송 날자를 잡았는데 하필 그 때 딸이 일본에 가 있어서 성사가 안됐지. 그 세 가지가 지금도 아쉬움이 남는다구.



〈후기〉옛날 얘기는 끝없이 이어지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기로 했다. 다른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라며 선배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대담.정리: 편집장

파.스.텔. 인생



손관승(보도)

운명이었을까. 잠시 몸을 담았던 신문사의 수습 기자 시험의 작문 문제는 ‘길’이었다. 200자 원고지 다섯 장 분량의 글은, 짧지만 그 안에 주제의식과 구성능력, 문장력까지 모두 담겨있어야 하기에 부담스러운 형식이다. 30여 년 전 어느 날 아침, 나는 그 질문지를 앞에 두고 한동안 멍하니 시간만 보내다가 마감 시간을 앞두고 “자연의 길, 사회의 길, 정치의 길, 언론의 길”이란 줄거리로 허겁지겁 써내야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신문사에서 채 1년도 있지 못하고 MBC 입사시험을 치르기 위해 정동의 한 교실에 앉았을 때, 내 앞에 던져진 작문 문제 역시 ‘길’이었다. 길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주제이면서도 20대 중반의 청년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질문이었다. 내가 방송사로 옮긴다고 했을 때, 신문사 선배 동료들이 던졌던 말이 아직도 귓전에 생생하다.

“너, 미쳤냐? 언론인의 길을 걸으려면 신문에서 해야지, 방송은 ‘바보상자’잖아. 다시 생각해봐!”

그 후에도 나는 현장에서 ‘바보상자’(idiot box)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신문에서 일하는 동료들은 늘 알잡아 보았고, 자칭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송을 도매금으로 바보상자라 매도했다. 세월이 훌쩍 흘렀다. 나는 그 바보상자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iMBC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중국과 일본의 거

대 미디어, 콘텐츠 기업 사장들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문화 바보상자’가 만들어낸 창의적인 콘텐츠 덕분이었다. 그 흔한 석사학위도 없이 달랑 학사학위라는 짧은 가방끈을 가지고 대학과 대학원 연단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전문기관에서 강연연사로 자주 초청받아 강연을 할 수 있는 기반 역시 바보상자 덕분이다. 그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다. 정확하게는 현장의 경험, 차별화된 나만의 체험이다. 그것이 요즘 강조되는 intangibles, 즉 무형자산이다.

방송은 신문이 도저히 제공할 수 없는 풍부한 무형자산을 선물했다. 미당 서정주의 시를 패러디하면 “나를 키운 것은 8할이 MBC였다.” 그곳에는 멋진 선배들과 창의적인 동료들로 넘쳐났다. 영어에 Learning by Doing이란 유명한 말이 있는 것처럼, 최고의 공부는 학교와 교과서가 아닌 현장의 일을 통해서였다.

나는 요즘 대학과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첫날, 빼놓지 않고 백지를 돌려 작문을 하게 한다. 주제는 바로 ‘길’이다. 대부분 오래 전의 나처럼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우리의 진짜 대화와 진솔한 공감의 시작되는 순간이다.

정든 회사를 떠나 두 권의 책을 세상에 퍼냈다. 오랜 현업의 결과와 번아웃(Burn Out) 되어 제 2의 인생 로드맵을 찾는 과정을 그린 것이 <괴테와 함께 한 이탈리아 여행>이라면, 최근에 낸 <그림형제의 길>이란 책은 스토리텔링과 킬러콘텐츠의 길을 찾는

과정이다. 아니 어쩌면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사회에 나왔을 때 받았던 작문 문제를 이제 다시 쓰는 것이라고 해야 옳겠다. 나만의 ‘길’을 찾아야 했을 때, 잔인한 거울 앞에 대면해야 했다. 중요한 것은 솔직해지는 것이었다. 자기과시형 성공담보다는 쓰디 쓴 실패와 눈뜨기 어려운 실수들을 겸허히 털어놓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다. 참으로 알다가도 모르는 게 세상의 일이다. 그 버거웠던 ‘길’이라는 주제가 나를 전혀 뜻밖의 새로운 길로 이끌고 있으니 말이다. 신문에서 칼럼을 쓰게 만들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하며 기업에서 강연을 하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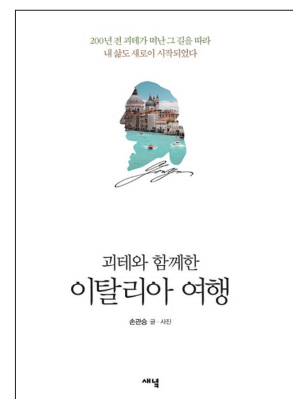
내가 애용하는 강의의 제목은 “파.스.텔”이다. 파스텔의 첫 번째 의미는 크레용처럼 그림 그리는 도구다. 파스텔이 그러하듯 색다른 글, 남과 차별화된 칼라의 인생을 말한다. 두 번째는 파워 스토리텔링의 준말이다. 요즘 글쓰기의 대세는 나열형이 아니라 한 가지 사건이나 사안을 중심으로 색다르게 이끌어가는 스토리텔링 형식이다. 입사시험을 앞둔 젊은이에게서부터 회사의 기획서, 더 나아가 대외 홍보문안, 프레젠테이션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그렇다. 여기에 파워가 붙는 것은 시장에 먹히는 글쓰기를 말한다. 혼자만 쓰고 말면 그것은 독백에 불과하다. 뉴욕과 할리우드, 실리콘밸리에서 관심이 쏠주하는 방식이다.

새해가 되면 또 한 살을 더 먹는다. ‘Happy New Year’라 외치지만 나이 먹는 것은 반갑지 않다. 그러나 곰곰 생각해보면 나이라는 말은 ‘나의 이야기’가 풍요로워지는 때이다. 지금까

지 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오던 히스토리, 즉 그(He)의 이야기(Story)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나의 인생 이야기에 집중할 시기가 아닌가 한다. 그러면 세상에 서운할 것도 없다. 삼삼오오 모여 뒷담화할 틈도 없다.

파.스.텔은 결국 자유를 찾는 과정이다. 진정한 자유는 명함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나의 이목과 평가에서 벗어나는 것, 보여주는 쇼윈도우(Show Window)적인 사이비 행복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 카드가 없으면 어떤가. 사무실이 없다고 남의 오피스텔을 기웃거리지 않아도 된다. 세상 커피숍이 다 내 업무공간이니까.

새삼 직업의 의미를 되돌아본다. 직(職)이라는 이름의 타이틀을 잃었지만, 평생 해왔던 업(業)까지 버릴 필요는 없지 않은가. 우리의 가슴 안에는 남이 모르는 활화산 같은 열정이 불타고 있을 테니까. 남이 건지 않은 나만의 이야기, 그것을 파.스.텔 색으로 입혀본다면 동화의 주인공처럼 또 다른 멋진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www.fbc.or.kr

MBC와 늘 함께하는 방송문화진흥회는 품격있는 방송문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의 관리감독기구이자 대주주로서
MBC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최고의 공영방송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우리나라 방송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콘텐츠진흥, 학술지원,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MBC